

[전체공지]

※ 방문이나 관심이 필요한 환자나 쉬는 교우분이 계시면 언제나 주임신부님에게 알려주시고 면담이 필요한 경우도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례를 희망하는 단기집중교리반 모집합니다. 2 월 23 일까지 접수바랍니다 (6 월 14 일 세례예정).

[잭슨빌]

- [사목회의] 2 월 9 일 주일미사와 친교 후에 있습니다.
- [전례자 봉사] 성당 게시판 2020 전례 봉사자 날짜와 명단이 공지되어 있습니다.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김 스테파니아 자매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[고리 기도] 2020 년 2 월 기도 지향으로 새로 부임해서 오신 김진모 펠릭스 신부님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정착하시도록 공동체 모두 함께 기도드립니다.

[게인즈빌]

- 돌아오는 금요일(2 월 14 일)에 평일미사가 있겠습니다. 7 시 Q&A, 7 시 30 분 미사 시작합니다.
- 2020 년도 교무금 약정서 작성 부탁드립니다.
- 2019 년도 세금보고 자료 필요하신 분은 프란체스카 자매님께 문의 바랍니다.

<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>

공동체	주일봉헌금	교무금	건축헌금	기타	총 계
게인즈빌	\$244(32 명)	\$350	-	차량교체 보조헌금 \$1000(주일), \$1000(익명)	\$594
잭슨빌	\$380(46 명)	\$540	-		\$920

**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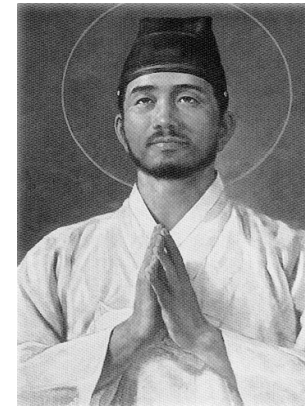
St.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

주임신부 김진모 펠릭스 (904) 909-5080

성당 (904) 573-1833

잭슨빌 성당 St.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, 8051 Rampart Rd. Jacksonville, FL 32244

게인즈빌공동체 St. Patrick Parish, 550 NE 16th Ave. Gainesville, FL 32601



聖 최경환(崔京煥) 프란치스코(1805-1839)

잭슨빌 한인 성당		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	
주일 미사	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	특전 미사	토요일 오후 7 시
평일 미사	매주 수요일 오후 8 시,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	평일 미사	둘째,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 분 성가대 연습실
성령 기도	매주 금요일 오후 8 시	성령 기도	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
성 프란치스코 기도회	매주(목) 오전 11 시	레지오	-
성시간	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	주일학교	매주 토요일 미사 후
예비자 교리	매주 주일 미사 후	예비자 교리	매주 토요일 미사 후
사목회의	둘째 주 주일미사 후	사목회의	둘째 주 주일미사 후
사목회	총무 이토마스 (904) 416-7437 부총무 김스테파니아 (904) 613-9245	사목회장	천창준 레오 (352) 727-0452

www.stfccm.org

https://www.facebook.com/St.FrancisChoe

오늘의 묵상

"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.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."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.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.'가 아니라, "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."라고 말씀하십니다. '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.'가 아니라, "너희는 세상의 빛이다." 하고 말씀하십니다. 언젠가 신앙으로 우리가 잘 다듬어지고, 성장하게 되고, 무엇인가 나아지게 되면 그때 소금이 되고,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소금과 빛은 먼 뒷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 자신이 소금이고,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.

예전에 썼던 제 강론들을 찬찬히 읽어 본 적이 있는데, 부끄러움이 확 밀려왔습니다. 글이 참 형편없다는 생각과 더불어 그 글에 맞게 살지 못하는 것도 부끄러웠습니다. 또 이런 글들을 많은 사람이 읽는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했습니다. 그래서 강론하는 것도, 강론 원고를 기고할 자신도 생기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. '부족하여도, 모자라도 그냥 올리자. 내 입장에서 아무리 부끄러워도 주님께서 알아서 이 글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.'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. 제가 하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, 제가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다고 하여도 나름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. 오늘 복음 말씀처럼 저 자신이 소금이요, 빛이라는 생각이 쉽게 들지 않더라도, 주님 말씀을 믿고 소금처럼, 빛처럼 노력하자는 생각을 해 봅니다. 빛을 함지 속이 아니라,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말입니다.

(한재호 루카 신부)

< 8. 찬미하여라 >



Bless the Lord, my soul, and bless God's ho - ly name.
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-



Bless the Lord, my soul, who leads me in - to life.
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

연중 제 5 주일

[제 1 독서] 이사야서 58,7-10

<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타져 나오리라.>

[화답송] 시편 112(111),4-5.6-7.8 과 9 (㉠4 ㄱ)

◎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.

[제 2 독서] 코린토 1 서 2,1-5

<나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하였습니다..>

[복음환호송]

◎알렐루야.

○주님이 말씀하신다. 나는 세상의 빛이다.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..

◎알렐루야.

[복음] 마태오 5,13-16

<너희는 세상의 빛이다..>

<전례 봉사자>

공동체		해 설	제 1 독서	제 2 독서	봉 헌
이 번 주	게인즈빌 (2/8)	이호석 레오폴드	천창준 레오	천하일 미카엘	-
	잭슨빌 (2/9)	이교순 카타리나	렉시 베로니카	서정원 헬레나	최크리스티나 김스테파니아
다 음 주	게인즈빌 (2/15)	임윤미 플로라	성충현 베드로	남궁은미 루치아	-
	잭슨빌 (2/16)	백경윤 아네스	렉시 베로니카	김 스테파니아	이교순 카타리나 이문자 모니카

<미 사 성 가>

공동체	입 당	봉 헌	성 체	파 건
게인즈빌	673	42	87	666
잭슨빌	25	332	497	29